

제36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22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계속)
2.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계속)
3.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계속)
4.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계속)
5.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계속)
6.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계속)
7. 상설소위원회장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

### 상정된 안건

1.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설훈·김민기·권미혁·서영교·정재호·백혜련·김병관·김상희·유동수·윤일규·변재일·김병기·신창현·송갑석·이용득·박정·조용천·이상민·송옥주·우상호·고용진·소병훈·백재현·김영호·김병욱·박홍근·이규희·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
2.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오신환·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찬열·이태규·이혜훈·임재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2
3.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수혁·권미혁·기동민·김병기·김부겸·김영춘·김영호·도종환·민홍철·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재호·박정·백혜련·변재일·서영교·소병훈·손혜원·송기현·송영길·신동근·심기준·심재권·안규백·원혜영·유동수·유승희·윤관석·이석현·이인영·이재정·이철희·이해찬·임종성·정춘숙·제윤경·조승래·진영·최인호·최재성·추미애·한정애·황희 의원 발의)(계속) ..... 2
4.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김종훈·강창일·오제세·이정미·이상현·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2
5.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김재경·김무성·유기준·정양석·원유철·주호영·유민봉·정태욱·정갑윤·조훈현·金成泰·정진석·박명재·박인숙·김정재·이양수·송석준·이만희·김현아·이은권·송언석·강효상·김규환·윤상현 의원 발의)(계속) ..... 2
6.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계속) ..... 2
7. 상설소위원회장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 ..... 3

(15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일본 정

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드립니다.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방청석에는 한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으로 미국 하원에서 선발된 10여 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참관 중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1.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설훈·김민기·권미혁·서영교·정재호·백혜련·김병관·김상희·유동수·윤일규·변재일·김병기·신창현·송갑석·이용득·박정·조용천·이상민·송옥주·우상호·고용진·소병훈·백재현·김영호·김병욱·박홍근·이규희·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2.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오신환·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찬열·이태규·이혜훈·임재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3.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수혁·권미혁·기동민·김병기·김부겸·김영춘·김영호·도종환·민홍철·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재호·박정·백혜련·변재일·서영교·소병훈·손혜원·송기현·송영길·신동근·심기준·심재권·안규백·원혜영·유동수·유승희·윤관석·이석현·이인영·이재정·이철희·이해찬·임종성·정춘숙·제윤경·조승래·진영·최인호·최재성·추미애·한정애·황희 의원 발의)(계속)

**4.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김중훈·강창일·오제세·이정미·이상현·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5.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김재

경·김무성·유기준·정양석·원유철·주호영·유민봉·정태욱·정갑윤·조훈현·金成泰·정진석·박명재·박인숙·김정재·이양수·송석준·이만희·김현아·이은권·송언석·강효상·김규환·윤상현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6.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계속)

○**위원장 윤상현**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결의안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상정된 5건의 결의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7. 상설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

(15시07분)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설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석호 위원님이 사임하신 유럽·아프리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 및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각각 유민봉 위원님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된 상설소위원회 및 소위원 구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상설소위원회 소위원장과 소위원이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사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관님 나와 계시니까……

○**정병국 위원** 지금 한일 간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을 할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짚막하게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오늘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 소집이 오늘 아침에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7월 18일 일본 측이 정한 3조 3항

제3국 중재 시한이 지난 뒤에 일본 측의 입장이 우리 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외교부 언론 대응 자료로 발표를 하고 또 청와대 2차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언론에 다 자세히 보도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오늘 오랜 순방을 마치고 아침에 귀국을 하셔서 외교부·산자부를 통해서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이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채택해 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상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예.

○**위원장 윤상현** 예,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지금 장관 보고는 부실합니다.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을 트위터를 보고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무장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청와대의 안보실도 아니고 주로 민정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부서에서 나서고 있고,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의 내각이 나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정상적으로 다루고 진행해야 될 데는 외교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이 와중에 아프리카에 가 계시고 전혀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고, 트위터로만 통해서 초단편적인 그런 내용만 국민들이 접해 가지고는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야 될지를 모릅니다.

다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를 이 기회에 국민들 앞에 외교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현** 또 장관 입장에서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으실 것……

○**이정현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편들지 마십시오. 왜 못 합니까?

○**위원장 윤상현** 아니, 우리가 지난번같이 여러 가지 또 정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정현 위원** 그것은 빼고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상현** 일단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하고요, 비공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혁 위원님.

○**이수혁 위원** 오늘 이 전체회의는 사실 간사회의에서 오늘 결의안 채택만을 의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고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래도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도 감안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장관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간사로서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질의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회의 결의안 통과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집권당, 정부와 국민 간의 틈새를 노리고 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로 부당한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오늘 결의하는 만장일치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대응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오늘은 일관되게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메시지가 나가고 다음 회의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지적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괜히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합쳐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

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정양석 위원님 다음에 이석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오늘 결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네 가지 결의안 중에 그래도 우리 외교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한 책임과 또 외교부의 대처능력 또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담지를 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당리당략적 입장을 벗어나서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한일관계가 이 결의안 하나만 의결하기에는 너무 심중합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엄중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큼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관께서 의사일정이 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일관계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 외교부장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결의안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우리가 촉구하고 힘을 모아 주었지만 이미 외교의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결의안도 낸 만큼 조금 더 한일관계를 풀어 가는 초당적인 그런 방안들을 토론을 통해서 강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리당략, 공격·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결의안의 정신을 살리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이석현 위원님.

○**이석현 위원** 방금 우리 정양석 위원님이 점잖은 말씀 하셨듯이 그냥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결의안의 정신 범위에서 궁금한 것 물어보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상임위가 전에 보면 무슨 현안이 불거지면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은 자제하는 입장에서 그저…… 그리고 장관이 준비해 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3대 기업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 지금 저쪽에서 불화수소 안 주면 우리가 반도체 못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삼성전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푸틴이 그것 지난번에 '우리 불화수소 99.99 순도 좋은 것 있다'라고 한 뒤로 그것을 샘플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테스트하는 데 한 석 달 걸린다 하네요.

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거기는 지금 러시아산보다도 중국·대만 제품에 더 비중을 두고 필요한 때는 거기 것을 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 거기는 물어봤더니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데 중국산 불화수소를 이미 쓰고 있고 또 우리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국산화를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지금 일본산을 줄이고 국산 부분을 좀 늘려서 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꿈쩍달짝 못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1919년에 독립운동할 때는 우리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단호하고 격렬하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본 갈 여행, 항공 예약했던 것을 20%씩 위약금 물어 가면서 막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요전에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말씀 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해서 또 앞으로 우리 스스로 불화수소를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도 얘기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정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정병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정부와 우리 의회가 협조 속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도 있는 정보 교류도 어렵고 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만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비공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들, 거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오늘 초당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으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정보 교류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오늘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5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소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 (8인)	김부겸 박 정 송영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4)
	◎김재경 유기준 유민봉	자유한국당(3)
	박주선	바른미래당(1)
예산결산 기금심사 (8인)	◎이수혁 박병석 원혜영 이석현	더불어민주당(4)
	원유철 정양석 정진석	자유한국당(3)
	천정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원심사 (6인)	심재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2)
	김무성 유민봉	자유한국당(2)
	◎정병국	바른미래당(1)
	이정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미주 (6인)	◎추미애 심재권 이수혁	더불어민주당(3)
	김무성 정진석	자유한국당(2)
	정병국	바른미래당(1)
신북방 (6인)	◎박병석 송영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3)
	원유철 정양석	자유한국당(2)
	이정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신남방 (6인)	원혜영 이석현	더불어민주당(2)
	유기준 윤상현 정양석	자유한국당(3)
	◎박주선	바른미래당(1)
유럽· 아프리카 (6인)	김부겸 박 정	더불어민주당(2)
	◎유민봉 김재경	자유한국당(2)
	정병국	바른미래당(1)
	천정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8인)

김 무 성	박 병 석	박 정	박 주 선
송 영 길	심 재 권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민 봉	윤 상 현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정 현	정 병 국	정 양 석	정 진 석
천 정 배	추 미 애		

○청가 위원(2인)

김 부 겸 이 해 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	관	강 경 화
제 1 차 관		조 세 영